

## 내 말들을 지켜라

성경말씀: 요14:15-24

마지막 유월절 식사, 유언의 말씀

채림의 약속(1-4절)

도마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함.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6-7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함(8-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사랑하기 원하느냐? 내 명령들을 지키라(15절). ★★★

위로자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구체적으로 명령들은 무엇인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라(23절). ★★★

말들(words): 단어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마4:4)

그러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그를 집으로 삼고 거한다.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편안한 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이 있다.

내 집처럼 여기며 거하신다는 뜻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24).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의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26절).

### 지키는 것의 의미

Keep: 간직하다. 내용대로 행한다.

법을 지키지(keep) 않으면 벌을 받는다.

법: “여기는 속도가 100km/h이다. 위반하면 벌금이 10만원이다.”

이 단어들을 장롱에, 은행 창고에 보관해서 간직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대로 행해야 한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다.

단순히 명령들을, 말들을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다.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말을, 법을 지키려면 먼저 그 안의 단어들을 보존해서 간직해야 가능하다.

‘내 말들을 지키라.’

### 말들을 지키려면

1. 말들이 있어야 지킨다.

성경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말하는 분이다. 창조,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다.

인격체의 기본 특성: 대화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

자신을 드러낸다: 창조 세계, 양심,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하나님은 영감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단어)들을 글로 기록해 주신다(딤후 3:16-17).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만이 객관적인 계시이다.

2. 말들이 보존되어야 지킨다.

구약의 말씀들이 소실되면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다.

시12:6, 잠30:5-6, 마5:18, 마24:35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 영감의 기적, 보존의 섭리 ★★★

3. 말들을 알아야 지킨다(행할 수 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간직된 그분의 말씀들은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행할 수 없다.

KJB 서문: 번역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껍질을 까서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다. 휘장을 치워서 지성소를 보게 하는 것이다. 우물 뚜껑을 열어서 물을 길게 하는 것이다. 번역이 없으면 우물은 있는데 그릇이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번역 과정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말씀들을 알고 그 뒤에 지킬 수 있게 했다.

만국의 공통어라야 한다.

구약은 유대인에게 히브리 말로, 에스라 시대에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정리가 되었다.

주후 90년경의 얀니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39권을 인정함

신약성경: 주후 90년경에 요한의 서신서들과 계시록이 기록됨으로 마감됨.

AD 397년경의 칼타고 공회에서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함

여전히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의 전유물

신약 교회에서는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역본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는 가운데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AD 313년, 대음모자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천주교의 형성

교회의 세속화, 성직자(사제)와 평신도의 구분, 이스라엘 대체

어거스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신학 형성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처리하는 시스템

국가 교회의 형성: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박탈

이런 일을 하려니 성경의 변개가 필요했다: 바티칸 사본, 시네 사본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 라틴 벌게이트(역본)를 사용했다.

천주교회는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로 이것을 대체하려 하였다.

왈덴시스 같은 성경 신자들이 성경을 보존하였다.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동로마의 문물이 세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중에 하나가 그리스어 사본으로의 복귀였다.

5000여 개의 사본들 가운데 99%가 같은 부류이다: 다수 사본, 다수 본문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본문, 성경 번역 대본

루터의 종교개혁: 독일어 성경, 만국 공통어가 아니다. ★★★

영국에서는 1380년경에 위클리프의 성경이 나왔다.

구약과 신약성경이 성경전서로 합쳐진 것은 영어 성경에서 비롯되었다.

그 당시 세상: 천주교 세상, 스페인과 포르투갈, 스페인어

1588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적함대를 떨하고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함.

영어는 라틴어, 유럽 국가들의 언어에서 단어들을 받으면서 고상한 언어로 정착되기 시작함.

셰익스피어(1564-1616년)의 등장, 영어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KJB가 발간됨.

1611년 5월 2일에 세상에 등장해서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평정함: 오대양 육대주

2011년 4월 12일, 미국 상원과 하원에는 킹제임스 성경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문

미국에는 청교도(장로교)들의 제네바 성경이 갔으나 미국은 KJB의 왕국이 되었다.

미국에서 최초로 인쇄된 성경,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서약하는 성경,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책 중에 가장 많이 인쇄되고 보급된 책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쇄되고 보급된 성경

400년 동안 한 번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책 ★★★

NIV, 리빙 바이블 같이 천박한 책이 아니다. ★★★

뉴욕타임즈: 4월 2일, 왜 이렇게 사랑을 받는가?

원본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위엄이 들어 있다. 영어를 읽는 사람에게 시의 운율을 주어 누구나 쉽게 읽고 암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우리가 할 일

KJB를 들고 있으면 영어로 원어 자체의 뜻을 그대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들어 있다(이텔릭체). 확신을 가져도 된다.

그러나 우리말이 아니므로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 보존해야 한다. ★★★

2000년 8월 초판, 400주년 기념판, 영어 성경도 230년이 걸려 보존되었다. ★★★

틴데일의 노력: 60-70%, 단 한 글자도 사사로이 넣지 않았다. 히12:2, 여러 형제들의 노력

그리고 그것에 따라 행해야 한다.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교회가 나와야 한다.

23절 다시 설명 ★★★

우리 세대는 이 성경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희생을 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 바른 것을 물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계22:18-19 경고